
서 평

불교의 프리즘으로 본 한국사 1,600년의 파장

[서평] 정병삼(2020), 『한국불교사』, 푸른역사, 739쪽.

김 용 태*

한국은 지리적·문화적·역사적으로 중국 문명권에 속하였고, 중심부와 주변부의 속성을 동시에 지녀 왔다. 동아시아의 다중 공간 속에서 한국은 중국 문화의 충실한 수용자이면서 또한 전달자로서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사의 길고긴 내적 흐름을 돌이켜보면, 특수(로컬)와 보편(글로벌)이 교차하면서 양자의 충돌과 융화가 되풀이된 과정이었다. 한국의 원형적 고유성은 동아시아 차원의 문화적 코드와 결합하고 변용되면서 질적 도약과 함께 확장적 고유성을 만들어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세계 종교이자 고도의 철학적 사유체계인 불교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이전에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후 토착신앙 및 원시적 관념과 부딪히면서 갈등과 변형, 상생과 조화를 거치며 새로운 전통을 접목해 냈다.

불교는 고대의 한국인들에게 개인의 심성을 일깨워주었고 죽음 이후 내세로 가는 이정표를 세워 길을 안내해주었다. 한국사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생겨난 파장은, 자연의 법칙성과 도덕을 결합한 성리학의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교수

도그마적 구속력, 그리고 합리적 이성과 과학으로 상징되는 근대문명이 미친 엄청난 파급력에 견줄만하다. 불교는 약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탄생한 이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의 각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문명사적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오랜 시간 불교가 걸어온 세계화의 여정은 토착문화와의 만남과 그에 빠르게 적응하는 격의적 접변, 새로운 파생문화의 창출로 이어졌다. 한국사에서 담당했던 불교의 역할과 성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는 고대의 한국사회가 문명화의 길로 나아가는데 횃불을 밝혔고, 한국인의 사유방식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지남석이 되었다.

일찍이 최남선은 한국의 역사에서 불교가 미친 영향력과 위상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조선불교의 대관으로부터 『조선불교통사』에 급함」(1918)이라는 글에서, “한국의 역사와 불교는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불교는 서민의 정신생활과 사회의 심령적 발전에서 유교보다 큰 역할을 해왔고, 사회적 세력과 문화적 영향력 또한 매우 컸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다 시야를 확대하여, 한국불교는 불교의 유통사에서 중요한 계통이며 결론적 불교라고 추켜세우면서 교리만을 숭상하기보다 학문연구를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며 중국과는 다른 특수하고 독자적인 가치를 형성해왔다고 자부하였다.

최남선은 이후 1930년 7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태평양 불교 청년대회에서 직접 발표하기로 되어있던 「조선불교 — 동방문화사상에 있는 그 지위」(1930)라는 글에서,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그는 동서 문명 교류에서 동방 교통의 종착지인 한반도가 문화의 최후 정류지라고 운을 댄 후, 승랑, 원측, 의상 등의 예를 들어 동아시아 불교사의 전개에서 한국 승려들이 크게 기여했음을 역설하였다. 최남선은 원효를 통불교, 전불교의 건설자로서 가장 뛰어난 사상가로 위치시켰다.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며 원심적 분화

경향을 가졌지만 한국불교는 구심적 귀합의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면서, 그 대표자인 원효는 교학의 이론적 종합, 일승사상의 완성, 이론과 실천의 융화와 불교의 대중화를 한꺼번에 이뤄냈다고 극찬하였다. 원효가 있음으로 해서 인도 및 서역의 서론적 불교, 중국의 각론적 불교와 대비되는 최후의 결론적 불교로 한국불교를 정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남선처럼 지극히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도, 실제로 한국불교는 동아시아 세계에서 중국, 일본과 함께 불교문화권의 일원을 이루어낸 중요한 지적 전통이었다. 내적으로도 한국사와 불교는 1,6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호흡을 같이 해온 동반자적 관계였고, ‘전통’을 말할 때 최남선처럼 조선조 500년의 유교보다 불교의 역사적 비중과 지분이 더 크다고 보는 이도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불교의 역사를 학술적 엄밀성을 가지고 날줄과 씨줄로 묶어 그 전체상을 그려낸 책은 아쉽게도 많지 않았다. 시대별·주제별 단행본은 적지 않지만 ‘한국불교사’ 전체를 통관하는 개설적 통사는 손을 꼽을 정도이다.

1910년대 후반에 권상로의 『조선불교약사』(1917)와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1918)가 나온 이후 일본인 학자 누카리아 가이텐(忽滑谷快天)의 『조선선교사』(朝鮮禪敎史, 1930)와 김영수의 『조선불교사고』(1939) 등 중요한 학술적 성과가 있었지만, 대개 고전적 연구서이지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은 아니다. 해방 이후 우정상·김영태 공저 『한국불교사』(1969), 안계현 『한국불교사연구』(1982), 가마다 시게오(鎌田茂雄) 『조선불교사』(朝鮮佛敎史, 1987), 김영태 『한국불교사개설』(1986)과 개정판 『한국불교사』(1997) 등이 나왔지만, 그로부터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연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아무래도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한편 여러 연구자들이 공저로 펴낸 『조계종사 — 고증세편·근현대편』(2004·2005),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 전통의 흐름』(2007) 등이 그나마 최근의 통사식 개설이라 할 수 있으며, 김용태의

『한국불교사』(韓國佛敎史, 2017)의 경우 일본어로 출판되어 독자와 성격을 달리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십 년을 한국불교사 연구에 매진해온 저자가 현재까지 나온 학계의 성과를 망라하여 한국불교사의 장구한 흐름을 740쪽에 달하는 거작으로 엮어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저자는 책머리의 「책을 내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 불교사는 한국 역사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한다. 한국 불교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세계 불교와 같은 면모를 보이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문화와 오랜 기간 어우러져 지내오는 동안 특유의 독자적인 면모도 적지 않게 만들어왔다.”라고 하였고, 이 책은 한국인의 심성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 불교의 면면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것이라고 밝혀두었다. 이처럼 저자는 한국불교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한국적 역사 전통에 보다 깊이 착목하고자 했다. 저자는 의상 화엄으로 박사학위를 했기에 신라 불교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간송미술관 연구원 경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미술과 조선후기 문화에도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의 표현을 옮기자면 고려대장경판을 정리하고 고승 비문과 승려 문집을 검토하면서 고려와 조선 불교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가능했다고 한다. 이 책에서 한국불교의 내적 흐름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조망한 것도 이러한 저자의 이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서설」에서는, “불교는 1,60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내적으로는 불교의 전통 역량을 바탕으로 하면서 외적으로는 시대적 상황과 다른 사상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 불교 등에서 적절한 대응점을 찾아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여 각 시대의 과제에 부응하는 사상적 성과를 냈다.”라고 하여, 불교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상적 진전을 이뤄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불교가 도입되고 토착 신앙과 만나 변용과 조화를 이루었고, 이후 유교가 국가이념으로서 체제 운영과

인적 자원 교육에 기여했다면 불교는 사회사상으로서 문화와 종교의 구심점이 되었다고 보았다. 개방적 분위기가 강한 고려 시대에 불교는 도교, 토착신앙과 공존하였고, 조선은 유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지만 불교가 종교적 역할을 지속했으며 산사는 신앙의 공간이자 전통 문화유산의 집약체였다고 각각의 특징을 뽑아내었다.

한편 저자는 ‘종파’의 성립이 언제부터였는지에 대한 학계 일각의 문제제기와 논란을 의식한 듯, 통일신라 때에 이미 화엄종, 법상종, 신인종, 계율종, 선종의 종파적 실체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고려 전기에는 종(宗)이 아닌 업(業)으로 칭해졌고 교는 화엄업, 유가업, 율업, 선은 9산문이 중심이 되었으며, 11세기 이후에는 선종이 조계종과 천태종으로 나뉘었다고 정리한다. 또한 고려 말의 사료에서는 선과 교의 여러 종파들을 ‘오교양종’으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었고, 조선 초에 11종의 종파 명칭이 확인되지만 세종대에 ‘선교양종’으로 귀결되었다고 하여, 한국불교 종파사의 흐름을 시기별로 취합하였다. 이는 1930년대에 김영수가 포석을 깔아놓은 종파사 이해에 기반을 두고 최신 연구 성과까지 참작하여 내놓은 결론이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책의 목차는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시대별 순서로 모두 8부로 구성되어 있다. 삼국은 불교의 수용, 통일신라는 불교사상과 신앙의 성립, 고려 전기는 사상의 다양성과 불교, 고려후기는 사회변동과 불교, 조선 전기는 성리학 사회와 불교, 조선 후기는 산사 불교의 독자성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그리고 근대는 ‘일제의 국권 침탈과 불교 근대화’, 현대는 ‘현대 한국 불교 — 산업사회 시대 불교의 지향’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목차의 내용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고대는 불교의 수용과 사상 및 신앙의 성립, 고려는 사상의 다양성과 사회변동, 조선은 성리학 사회와 산사 불교, 근현대에는 근대화와 산업사회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와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의 주요 사건을 집약

한 연표와 세밀한 지도도 책의 내용 이해를 돕는다.

시대별로 이 책의 항목 및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대는 불교의 전래와 삼국의 수용, 교학과 신앙, 시대와 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는데 구법승의 활동, 일본불교와의 관계를 별도로 서술하여 흥미를 끈다. <신라 선문 계보>와 같은 도표도 핵심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놓았고, 능산리 절과 왕흥사의 석가불 신앙처럼 보른 형식으로 최신 정보를 소개한 것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사진 및 도판에서 눈치 챌 수 있듯이 저자는 미술사와 건축사, 고고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대거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구려의 정릉사, 백제의 정림사와 미륵사, 신라의 흥륜사와 황룡사, 삼국의 불상 조각, 불국사와 석굴암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한 것은 이 책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다.

고려는 흔히 불교국가라고 할 정도로 불교가 사회적으로 중시되고 전 계층에 걸쳐 신앙되었다. 다만 국가는 사찰을 지원하는 한편 불교를 관리, 통제하였고 승정체계를 관료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정치와 종교의 이원체제로 불리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정책과 종파, 교학과 신앙 및 의례, 대장경과 인쇄, 사원경제, 결사와 임제 간화선, 불교 사서와 고려 불화 등을 다루었고 성리학의 수용과 척불론에도 크게 비중을 할애하여 서술하였다. <고려 주요 승려 승계 상승 연령>, <고려 고승 문도 명단 예>, <고려시대 불교 행사 개설>과 같은 도표도 관련 연구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익한 정보를 담았다.

조선 전기 불교사는 대개 억불책의 단행이라는 정형화된 틀로 굳어졌지만, 이 책에서는 사원의 축소 외에 양종체제의 존속, 불교신앙의 지속처럼 당시의 역사상을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와 한글, 경국대전 체제, 사족 사암, 불서 간행 경향 등을 특기한 것도 근래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선후기는 기존에

‘산중 불교’라고 불리던 것을 ‘산사 불교’로 용어를 대체하여 썼다. 계파·문파, 삼문 수학과 승려 교육과정인 이력, 승군과 승역, 사원경제, 선교관과 조사선, 강경, 불교 사서, 선 논쟁 등의 항목에서도 최근 가장 활발하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 이 시기 연구를 집약해 놓았다. 특히 영·정조대의 불교, 승려와 사족의 교류, 왕실과 세도가의 불교신앙, 승려 문집 등은 저자의 학문적 역량이 잘 발휘된 부분이다. 또 사원의 증창과 구조의 변화, 불전의 구조와 불단의 변화, 불화와 괘불, 불교 예술 등의 서술은 건축사와 미술사 분야를 섭렵한 저자의 혜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18세기 승려 문집 주요 내용>과 같은 표도 요긴히 활용할 수 있다.

저자는 유학사상사와 유학자들의 불교 인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조선시대 불교의 의의를 바르게 밝히지 못한 것과 근현대 불교의 서술이 미흡한 점을 한계로 꼽았다. 이는 조선시대 유불 관계에 대한 연구가 몇몇 인물이나 호불 논서에 제한되어 있고 사상사적 차원의 본격적 탐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본서에서는 권근, 변계량, 김종직 등 유학자들의 불교관, 김시습과 이이처럼 불교 경전과 선 수행을 직접 접한 이들의 불교인식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근현대 불교 또한 저자의 전공 시대는 아니지만, 기존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면서도 저자 나름의 견해를 붙여 놓아 흥미롭게 읽힌다. 일제의 불교 정책이나 기관 설립 및 운동, 근대적 불교 연구, 정화와 법난, 조계종 개혁종단까지 격변의 시대 속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고 불교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폭넓게 다루었다. 또한 경허, 용성, 한암, 석전 등 근대기 대표적 고승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굴절의 시대를 지나온 불교계의 과거와 눈앞에 놓인 현실을 담담하게 그려내었다.

한국불교는 인도는 물론 중국과도 다른 고유한 특성을 형성하면서 전개되어왔다. 이는 불교의 보편성과 확장성이 한국적 토양에 뿌리내

리고 새로운 전통을 창출해왔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역사에서 불교는 사상과 종교, 문화와 의례, 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거대한 변화를 추동해 왔고, 한국인의 심성과 가치관의 저변에는 유교와 함께 불교적 맥락이 깊숙이 깔려 있다. 장기지속, 내재적 전통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던 불교는 지금 현재도 한국사회 안에서,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불교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주축을 이루었고 또 현재에도 한·중·일 모두에서 살아 있는 역사이자 현실 종교이다. 따라서 불교에 대한 이해는 한국사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통찰을 그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 책이 불교의 프리즘으로 한국사 1,600년의 파장을 읽어내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